

김제 '시드 벨리'사업 탄력

(Seed valley)

육종연구단지 국비 644억 확정 내년 하반기 착공 2015년 완공

김제시 백산면 축산시험장 부지에 조성하는 민간 육종 연구단지(시드 벨리=Seed valley) 사업이 관련 예산 증액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됐다. 김제시는 "기획재정부가 민간 육종연구단지(54ha) 사업비(국비)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안한 644억원 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는 국비 644억 원·도비 20억원(부지 매입비)·민간 업체 투자비 60억원 등 724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사업비는 당초보다 454억원이 늘었다. 그동안 육종연구단지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후 사업비가 결정되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드 벨리는 백산면 축산시험장 부지에 미래형 종자 개발과 수출을 위한 종자연구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곳엔 벼, 옥수수, 배추, 고추 등 식량 및 사료작물의 종자를 개발하며 나아가 종자를 세계에 수출하는 전조기지 역할을 한다.

사업은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정부, 대학, 출연기관이 연구와 인프라를 지원한다. 단지에는 국내 20여개 중견 종자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김제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오는 2015년까지 단지를 조성한 후 육종연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제시는 '시드 벨리'를 계기로 지역을 종자사업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김제=강철수기자 knews@

남원 내년 120억원 들여 향교지구 침수예방사업

내년에 남원시가 향교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남원시는 "향교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2013년 시행사업으로 확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총사업비 120억원이 투입되는 향교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은 향교동과 왕정동 일대의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으로, 2013년부터 착수해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단신

참본 '황진이'주 우리술 품평회 최우수

남원지역 전통주 생산업체인 (유)참본에서 출시한 '황진이주'가 최근 열린 '2012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약주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유)참본은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2010~12년까지 '주몽 북분자주'와 '황진이주'로 3년

연속 입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입상제품에 대해 국내외 박람회와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전통주의 세계화를 위한 명품 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군산 시립예술단 5일 '허브 콘서트'

군산 시립예술단은 오는 5일 저녁 7시 30분 시민문화회관에서 제8회 합동 연주회로 '시인과 함께 하는 허브(Hub)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합동연주는 그동안 시민들이 시립예술단에 보여준 관심과 격려에 보답하는 의미로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엄선한 클래식

곡을 무대에 올린다. 시립교향악단 악장인 꼬나힌 알렉산더(Konyakhin Olexsandr)와 시립합창단의 소프라노 이경선의 솔로연주곡은 시립예술단원들의 수준 높은 연주 실력을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박금숙기자 전북본부장 nogusu@

가린 영농조합 '모든' 전문농장 시범사업자

선진국형 돼지축사 개념을 도입한 모든(모든=번식에 이용되는 어미돼지) 번식 전문농장이 최근 김제시 축산면 신흥리에 문을 열었다. 가린 영농조합법인(대표 김현욱)이 운영하는 농장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모든번식 전문농장

시범사업자로 선정돼 사업비 60억원을 들여 번식과 비육생산체계를 분리, 전문화·분업화된 생산체계를 구축했다. 농장은 축사 바닥에 미생물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 근본적인 악취가스 발생을 줄이는 친환경 온사로 운영된다. /김제=강철수기자 knews@

순창 오수환 경제과장 대통령 표창

순창군 오수환(55) 지역경제과장이 최근 열린 '민방위 창설 제37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오 과장은 2010년 을지연습의 성공적 수행과 2011년 민방위 업무발전 유공으로 2년 연속 전북도지사의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오과장은 문화와 생활환경

이 다른 외국이주여성 80명에 걸쳐 2회에 걸쳐 생활민방위 교육을 실시해 위험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토록 했고, 민방공 훈련과 지진대비·정전대비 훈련을 현장지휘해 훈련의 효과를 높였 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정읍 내장산 주제 대중가요 나와

단풍명소의 정읍 내장산을 주제로 한 대중가요가 탄생했다. 정읍시와 정읍문화원은 지난 27일 내장산문화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정읍사 가요제'에서 내장산 노래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에 발표된 '내장산'은 정읍시와 정읍문화원에서 지난해 10

월 '내장산 노래가사 전국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고순옥(충남 보령)씨의 노랫말에 이호섭(작곡가)씨가 작곡·편곡을 맡았다. "동녘 바람 불어오면 곁에 물든 내장산아"로 시작하는 노래는 가수 김용민씨가 신곡으로 취입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남원 새처럼 '제8회 고택군수배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국내외 패러글라이딩 선수 200명과 전국동호인 등 모두 1000여명이 출전한 가운데 지난 25~29일 고택 방장산 활공장에서 열렸다. 대회 결과 남자부 1위는 정세웅(진광라이더씨), 여자부 1위는 이다영(한국패러)씨가 차지했다. <고창군 제공>

정읍시, 야생화 농가 소득원 육성

쌍암동 3억 들여 단지 조성

정읍시가 야생화를 농가 소득작목으로 본격 육성한다. 정읍시 야생화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산림청 주관의 입업인들의 소득증대 제고를 위한 '2013년 주요 산림소득사업' 공모에서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국·도비 1억6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쌍암동 산 17번지 일대에 국·도비와 자부담 등 모두 3억5000만원을 들여 4300㎡ 규모의 야생화 생산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야생화단지에는 현대식 재배시설 하우스와 포트묘 생산시설과 관수 시설 및 자동화 시설이 설치된다. 또 탈중나리, 금새우란(사진), 자란 등 관광가치가 높고 약용 및 웰빙 식품으로도 개발가능성이 큰 야생화를 연간 10만본 생산하게 된다. 김생기 시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야생화를 판매할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상품화하고, 기능성 식품으로도 연구 개발하는 한편 생산단지를 체험학습 장으로도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 고추장 임금님께 진상합니다"

2~5일 장류축제

'제7회 순창 장류(醬類)축제'가 2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순창 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서 개최된다. '천년의 맛! 전통의 맛! 건강의 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독특한 추억과 감동이 있는 총 81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첫날인 2일은 축제 붐을 조성하기 위해 조선시대 순창 고추장을 왕에게 진상하던 행렬을 재현한 '순창 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이 축제장을 순회하며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장류고추를 청소년 어울마당과 순창고추장 역사퀴즈대회, 순창고추장 2012인본 떡볶이 만들기, 제8회 장류 국제 포럼과 금과 들소리 공연이 이어진다. 저녁 6

시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축하공연과 불꽃놀이가 화려하게 펼쳐진다. 이어 둘째 날인 3일은 장류 어린이 드림팀, 순창고추장 2012인본 비빔밥 만들기, 순창고추장 요리 경연대회, 세상에서 가장 긴 107m 메주 만들기, 장류 줄타기 공연과 추억의 7080 댄스 등 신명나는 문화공연이 마련된다. 저녁 7시에 열리는 '2012 슈퍼스타 순창'에서는 본선에 오른 16개팀의 다양한 장기를 볼 수 있다. 마지막날인 4일은 읍·면 농악대회와 순창고추장 전국어린이 떡볶이 요리왕 선발대회, 창작 창극 '국악여행', 마당극 '고추장 선녀와 뽕나무꾼', 제13회 순창국악공연이 진행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유료화

오늘부터 성인 2000원·청소년 1000원

군산시민 50% 할인

개관 1주년을 맞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1일부터 유료화된다. 군산시는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무료관람을 종료하고 1일부터 유료화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람료는 ▲성인 기준 개인 2000원(단체 1000원) ▲청소년 1000원(단체 700원) ▲어린이나 군인은 각각 500원(단체 300원)이며, 군산시민은 관람료의 50%를 할인받는다. 근대 역사박물관은 그동안 매분기마다 다양한 테마의 차별화된 기획

전시를 마련, 개관 10개월만에 관람객 20만명이 방문하는 등 호평을 받았다. 특히 기존의 정형화된 박물관의 이미지를 탈피해 관람객과 함께 살아 숨 쉬는 생동감 있는 공간의 장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시 체험장을 무대로, 자원봉사자를 배우로, 관람객들을 관객으로 활용한 근대역사 박물관 운영의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유료화 전환은 박물관 운영의 최소경비를 확보하고, 성숙한 관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면서 "관람료 징수를 통해 좀 더 차별화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전국최고의 특화된 명품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말 개관한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총 182억원이 투입돼 부지 8347㎡에 건물 연면적 4248㎡(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전시관은 ▲해양물류 역사관(509㎡) ▲어린이 체험관(126㎡) ▲근대생활관(617㎡) ▲기획 전시실(231㎡) 등으로 구성됐다. /군산=박금숙기자 전북본부장 nogusu@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무조건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나 덤핑전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